

## 월드컵 2차예선 3월 재개 가능? KFA, 코로나19에 '플랜B'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단단히 꼬인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의지는 뚜렷하다. 예정대로 3월 25일 튀르키예와 홈 5차전, 5일 뒤 스리랑카와 원정 6차전을 소화하고 싶다.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3월과 6월 홈경기 개최장소와 킥오프 시간, 운영방식 등 주요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하지만 의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방역당국을 설득해 2주간의 격리를 면제받고, 원정 선수단의 동선을 최소화하는 '버블'을 도입해도 상대국의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 현재 튀르키예니스탄은 스스로 청정지대라 주장하고 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의 유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대국이 한국내 확진세를 이유로 원정경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아니나 다를까. 튀르키예니스탄은 3월 방한이 어렵다는 뜻을 이미 AFC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원정 거부 시 몰수패와 관련한 규정도 검토했었다. 정치적 사유가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렇다면 AFC의 입장은 어떻게. 핵심은 유연한 대처다. 아시아 사정에 밝은 축구인들은 14일 "AFC는 6월까지 2차 예선을 종료한다는 목표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주간에 쏘아대지 않고 틈틈이 경기를 치르는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아시아의 사정은 설각적이다. 일본은 외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방침을 선회해 3월 30일 잡힌 원정경기를 자바에서 홈경기로 소화하기로 했다. 경기 개최의지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강한 반면 타지역은 조심스럽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부 동남아 국가가 나서려는 조짐이 포착됐으나 3월이 아닌 6월에 힘이 실린다.

한국도 내부적으로 6월에 2차 예선 잔여경기를 한꺼번에 치르는 플랜B를 염두에 두고, 3월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0월 A대표팀과 23세 이하(U-23) 대표팀이 맞붙었던 스페셜 매치와 같은 이벤트 대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AFC는 이번 주내로 주요 회원국의 입장을 취합해 3월 월드컵 2차 예선 재개가 가능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5월 플레이오프(PO)와 조별리그를 치를 예정인 AFC 챔피언스리그도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공산이 높다.

남정현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독일 2부리그 다름슈타트 백승호, K리그서 뛸 수 있을까?

# ‘프로계약 5년’ 넘겼다…전북행 청신호

5년내 복귀엔 최대액 3600만원 규정  
백승호, 최초 계약시점부터 5년 지나  
다름슈타트와 100만 유로선 협상 가능

K리그1(1부)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2021시즌 수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채우려 한다. 중앙과 오른쪽 측면, 공격 2선을 두루 책임질 수 있는 '다용도 미드필더' 백승호(24·SV다름슈타트)의 영입이다.

분위기는 좋다. 최근 긍정적 소식을 접했다. 백승호가 프로 계약을 맺은 지 5년을 넘겼다는 내용이다.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해외에서 뛰던 선수가 K리그로 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리그에는 독특한 룰이 있다. 곧바로 해외로 진출한 아마추어선수가 해외 팀과 프로(성인 레벨) 계약을 한 뒤만 5년 내 돌아오면 최대 연봉이 3600만 유로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전 및 공격 포인트 등에 따른 수당으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는 있으나, 선수는 불리하다고 여길 수 있다.

김상식 감독과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직접 나서 백승호의 K리그 진출과 입단 의지를 확인한 전북은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백승호의 신분조회를 요청했다. IT·C(국제이적동의서) 발급 시점에 대한 논의였다.

연맹을 거쳐 대한축구협회가 이달 초 스페인축구협회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



전북이 백승호 영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식 감독과 박지성 어드바이저가 직접 나서 백승호의 K리그 진출 의지를 확인한 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스페인축구협회에 신분조회를 요청했고, 설 연휴 전 '프로계약 시점이 5년을 넘겼다'는 희신을 받았다. AP뉴시스

는데, 설 연휴 직전 희신이 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2016년 3월 이전에 프로선수가 된 백승호는 3600만 원보다 많은 연봉을 받으며 K리그를 누빌 수 있다.

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행히 백승호는 해당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백승호가 바르셀로나 B(성인 2군)에 합류한 시점은 2015년 여름이다. 그는 이후 CF페탈라다~지로 나를 거쳐 2019년 8월 독일무대를 밟았다. 전북, 강원FC 등과 접촉하다가 유럽 잔류를 결정한 이승우(23·포르티모넨스SC)도 백승호처럼 최초 프로 계약 시점이 5년을 넘겼다.

전북은 이미 다름슈타트와 직·간접적 루트로 협상창구를 열었다. 영입 형태는 완전히적으로 방향을 잡았다. 2022년 6월까지 백승호와 계약한 상대가 원하는 개괄적 이적료도 파악했다. 현재 다름슈타트는 100만 유로(약 13억4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임대도 검토한 전북은 80만 유로(약 10억7000만 원) 선에서 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격이 크지 않은 셈이다. 프로 계약 시점이 확인된 만큼 양 구단 간 협상은 물론 백승호와 전북의 협상도 언제든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이적이 성사되면 서로에게 긍정적 요소가 많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백승호는 안정적 환경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으며 도약할 수 있고, 이승기와 쿠니모토(일본) 등이 부상으로 이탈한 전북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특급 미드필더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럽축구의 겨울이적시장은 닫혔지만 K리그는 3월까지 열려있어 협상 기간 또한 여유롭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폴란드 출신 자와다, 승격팀 제주의 ‘첫번째 외인 킬러’

키 192cm·몸무게 87kg 체격 탄탄  
제공권 싸움·연계플레이 등 능해



자와다

K리그1(1부) 승격팀 제주 유나이티드가 폴란드 출신 공격수 오스카 자와다(25)를 영입했다. 제주 구단은 14일 "자와다가 11일 한국에 입국해 자가격리를 마치는 24일 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발표했다.

자와다는 새 시즌을 앞두고 외인 영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제주가 처음 공개한

선수여서 관심이 쏠린다. 지난 시즌 2부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선수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던 제주주는 그동안 다양한 후보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다른 구단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영입 소식을 전한 것과

는 대조적으로 제주주는 조용했다.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기도 했고, 또 원했던

선수와 협상이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자와다는 폴란드 17세 이하(U-17), U-19, U-21 등 연령별 대표를 두루 거쳤다. 2012년에는 독일 볼프스부르크 유소년팀에 들어가 U-19 팀과 2군 팀에서 뛰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1군 데뷔를 하지는 못

한 가운데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무대에서 활동했다.

싸움에 능하고, 연계플레이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주는 연령별 대표를 거친 자와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제주주는 "강력한 전방 압박과 유기적인 조직력을 강조하는 남기일 감독의 축구 스타일에 부합하는 선수"라고 설명했다.

자와다는 구단을 통해 "제주라는 좋은 팀에 합류해 정말 기쁘다. 공격수로서 팀에서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개인적 목표는 이미 설정했다"며 "팬들에게 빨리 증명하고 싶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주주는 스트라이커 자와다 외에도 측면 공격수 2명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최현길 기자 choiing2@donga.com

심혈관질환 환자 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

## 연평균 3만여 명이 겪는 심정지! 돌연사 막는 생명팔찌가 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발병 후 4분 내의 24시간 지니고 있어야 응급상황에 사용 가능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전이 쌓여 발생하는 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질병 사망원인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질병으로 발병율이 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3만여 명이 겪고 있지만 생존율은 고작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응급상황 발생부터 심정지까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4분이 채 되지않고 이 시간이 지나면 뇌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4분을 넘기면 목숨을 건져도 뇌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다. 따라서 병원에서 심혈관질환 환자들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을 보관하는 곳은 자석의 형태로 되어있어 위급시 손쉽게 열 수 있다. 또한 방수기능을 갖추고 있어 샤워나 목욕시에도 차고 생활할 수 있다. 혈관질환 환자중 돌연사가 80~90%를 차지하므로 전조증상이 올 때 빠르게 꺼내어 사용이 가능한 예노라이프 팔찌는 골든타임 내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명품브랜드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장식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예노라이프 팔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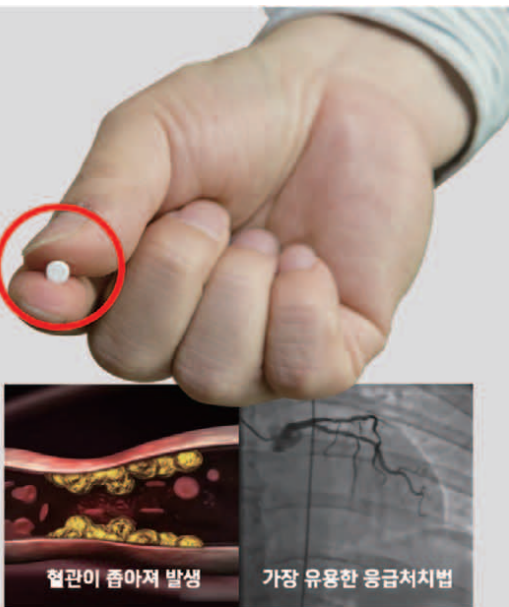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건강정보)

## 생명을 살리는 니트로글리세린이 뭐길래?

니트로글리세린은 노벨이 발명한 화약의 소재로 섭취 시 순간적으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혈관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당시 다이내마이트 공장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맛이 달달한 니트로글리세린을 수시로 먹곤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를 먹으면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발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의 미스터리가 밝혀지자 심혈관질환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등의 서구인들은 환호했다. 또한 수많은 제

약회사들이 심혈관질환 치료를 위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신약 개발에 나섰다. 당시 미국심장협회는 일산화질소에 대한 발견을 심혈관계 의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서 녹여서 접막으로 흡수 후 전신으로 신속히 작용하도록 설계된 설하제이다. 심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발생 시 구급차 도착 전에 스스로 사용함으로써 혈관을 순간적으로 확장시켜 위급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문제는 제품이 3mm로 작아 보관이 까다로운 것이 단점으로 알려져 있다.



“팔찌하나 찼을 뿐인데 든든해서 좋구나!”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예노라이프 팔찌는 꼭 필요한 상품이며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40% 특가 행사중!

본 이벤트는 300명에 한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할인 이벤트이며 소진 시 예고없이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YENOLIFE

상담 및 구매문의

1670-5465